

'1700만 촛불시민' 독일 인권상 수상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파면 1주년 되는 내년 3월 광화문에 촛불집회 기념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700만 시민이 독일의 권위 있는 인권상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2017년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모임으로서 시민을 대신해 수상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6일 수상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인 내년 3월 광화문에 촛불집회 기념비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1차 촛불집회 1주년(10월 29일)인 이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기념 집회와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다음 주 토요일인 28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시민

혁명 1주년 기념 촛불집회'가 열린다. 집회 후에는 청와대 방면 행진도 계획돼 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을 맞는 내년 3월에는 광화문에 '촛불 시민혁명 기념비'를 제막한다. 정확한 위치나 형태, 새겨지는 글씨 등은 미정이다. 내년 3월에 촛불집회 백서도 발간된다. 이에 앞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각종 토론회가 차례로 개최된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촛불집회는 단순히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만 진행된 게 아니었다"면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사회 대개혁 과제는 아직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1주년 행사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으로 '촛불 시민'이 선정됐음을 발표했다.

사문겔(Sven Schwesensky)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라면서 "대한민국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한국 시민들은 가혹한 겨울 날씨에도 매주 모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와 법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드러냈다"면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에 대한 강한 저항심을 보여주면서 민주적 참여에 대한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한국 민주주의에 새 활력을 불어넣은 모든 이를 대신해 비폭력 집회를 옹호한 퇴진행동에 이 상을 대신 수여한다"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개개인이 앞으로 시민행동을 계속하는 큰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의 첫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뜻에 따라 1925년 설립된 에버트 재단은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정치 재단으로 꼽힌다. 이번 시상식은 12월 5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김형호기자 khh@연남뉴스

트럼프, 내달 초 방한 때 국회연설 추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방한 기간 국회 연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미국 측에서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국회 연설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사 타진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제안한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외국 정상 이 국회에서 연설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반대도 없다면 국회연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 첫 국회 연설을 했으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1993년 한국을 방한해 국회에서 연설한 바 있다.

하지만 북 핵 해법과 한미 FTA 재개정 등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 점에서 국회 연설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남 미항사 대응전 천불도 부실 수리는 특정 업자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 때문"

손혜원 의원 "문화재청·자문위원·업자간 부패사슬 문제"

최근 해남의 미항사 대응전의 천불도 부실·졸속 수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특정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5년 한 수리업체는 미항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 대응전에 그려진 천불도(천 명의 부처를 그려놓은 벽화)를 칼로 때어내는 작업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원본이 훼손돼 논란이 됐다.

손 의원은 "천불도 훼손 사건 뒤에는 문화재청 및 자문위원, 업자들 간의 부패사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6년 정부에서 (천불도 벽화를 때어내는 것에 대비한) 모사 작업을 위한 예산이 나왔다. 이때 정부 예산을 통해 모사를 맡은 이 모(여)씨와 이번 천불도 보존작업을 한 박모(남)씨는 부부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인이 예산을 받아 모사 그림을 그리고, 몇 년 뒤에 남편이 수리를 하자고 하면서 부인의 그림으로 원본을 대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부가 전국을 돌면서 수의계약으로 각 사찰에서 돈을 버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의원은 "실제 승인·기술지도 단계마다 김모씨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 분은 문화재청에서 20~30년간 근무한 분으로, 업체들과 함께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농기계 교통사고

전남 526건 '최다'

치사율도 17.7% 달해

전남지역의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16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1~2016년) 농기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52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북 480건, 경남 298건, 충남 277건, 경기 216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발생한 전국적으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2620건으로, 전남지역 사고 발생 건수가 20%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440명이 숨지고 287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7%에 달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2%)보다 약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주요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71%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257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7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중 65세 이상 노인 사고가 63%를 차지했다.

농촌 지역 대부분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의 농기계 작동 미숙 등이 농기계 교통사고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령의 농민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에 맞춘 농기계 안전수칙과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판장서 처음 입 연 박근혜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구속부터 변호인단 사임까지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4월17일	박 전 대통령 기소,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선고 기한: 기소 후 6개월)
5월23일	박 전 대통령 첫 공판
6월1일~	6월부터 매주 4차례 공판 진행
10월13일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구속 기한 최장 2018년 4월16일 이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재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10월19일	재판 예상 시나리오 5

1. 변호인 사임 철회 → 기존대로 심리 진행
2. 박 전 대통령, 새 사선 변호인 선임 → 심리 지연(수사기록·재판 진행상황 검토 등)
3. 법원, 국선 변호인 임의 지정 → 심리 지연(수사기록·재판 진행상황 검토 등)
4.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조력 거부 → 심리 지연, 연내 선고 불가
5. 박 전 대통령 법정 출석 거부 → 결심 재판(피고인 없는 상태로 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질 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일 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정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구속 연장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전했다.

연합뉴스

18일까지 광주서 한독공동학술대회 열려

광주에서 한국과 독일의 과학·기술 미래를 논의하는 '제9회 한독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독일동문네트워킹인 아데코(ADeKo) 이사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주한독일대사관, 독일고등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에서 학계, 정관계, 기업 인사, 과학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팻섬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번지, 무인도 임 14,010평/보전관리, 목포에서 50분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투자까지 최고 매14억, 현금2억+기타부동산과 교환가
주식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